한국사 문제 6월20일

1. 다음과 같은 조목의 발표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시장에 외국상인의 출입을 엄금할 것. -사전을 혁파하고 균전으로 하는 목민법을 채용할 것. -타국에 철도부설권을 허용하지 말 것. -요순 공맹의 효제안민(孝悌安民)의 대법을 행할 것을 간언함. <대한사민논설 13조목> 中

① 혹세무민(*惑世誣民*) 의 종교로 지목되어 교조가 처형당하였다.
②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을 결성하였다.
③ [동경대전], [용담유사]등을 종교서적으로 사용하였다.
④ 교조의 신원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.
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봉기를 일으켰다.

2. (가), (나)개정이 발표된 사이시기의 국내외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(가) <제 4조>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 <제 5조>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또는 집행케 하고 임시 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 (나) <제 1조>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. 광복 완성전의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다. <제 27조> 국무 위원회 주석의 직권은 아래와 같다. 1 국무 위원회를 소집한다. 3. 임시정부를 대표한다.

① 만주에 육군주만참의부가 설치되었다.
② 일본요인을 암살하기 위하여 임시정부에서 한인애국단이 창설되었다.
③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어 임시정부의 미래를 논의하였다.
④ 천도교소년회가 조직되었다.
⑤ 조선형평사가 설치되어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였다.